

15:20 - 15:40

외과의 유방 검진

순천향의대 외과

이 민 혁

1.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 현황

유방암은 2001년부터 여성암중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 추이에 있어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로 서양의 0.5%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조기암 진단사업과 핑크리본 캠페인 등 유방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유방촬영술의 보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조기유방암(stage 0, I)이 점점 증가하여 전체 유방암의 47.1%(2006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6.3%로 서양의 87.0%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유방 검진

유방암의 선별검사란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현재 세가지 검사(유방자가진단, 유방정기진찰, 유방촬영술)를 함께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RI, Tissue sampling 등이 새로운 선별검사법으로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사업 중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은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검자 수가 2006년 현재 약 90만명으로 증가 추이에 있다. 유방암 조기검진사업의 검진항목으로는 양측 유방단순촬영술이 기본으로 시행되며, 그 결과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추가검사를 요함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미세침생검과 병리조직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에서 유방암은 서양과 달리 30-40대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특징이 있으며, 젊은 여성에서 치밀 유방이 많아 선별검사로서 유방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3. 외과 유방전문클리닉의 특성

현재 유방질환 환자의 대학병원 의뢰 1차병원의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유방전문클리닉, 내과, 검진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는데, 각과의 특성상 상호간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 중 외과 유방전문클리닉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34개의 의원이 개업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진단과 함께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 환자에 대해 진찰을 하고 수술을 통해 육안적 병리소견을 보기 때문에 mammogram과 초음파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으며, 수련과정을 통해 풍부한 해부학 및 종양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성화된 유방전문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과 유방전문클리닉은 유방질환 환자에 대하여 진찰 및 상담, 검진(mammography, ultrasound), 진단(core biopsy, mammotome biopsy), 수술을 one-stop으로 진행함으로써 유방질환에 대한 total care를 시행할 수가 있다.

4. 맺음말

유방검진의 확대로 조기유방암의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진단지연, 오진, 합병증 등에 대한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유방질환의 검진, 진단,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 연수(workshop)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려된다.